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제1장 교회의 선교¹

F-1.01 하나님의 선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 대해, 그리고 세상 안의 교회 선교에 대해 내용과 형식을 부여한다. 성경 말씀 대로, 이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며 화해시키시고 재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사이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전 세상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님 은사를 전 세상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선교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룩하는 가운데 소망이 충만한다. 각지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과 계약 친교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포용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와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갖고 있지 아니하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1.0201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삶과 선교는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다.

1.020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심

¹ 이 문서와 정치/형태를 통해 쓰여진 대문자 “교회”(“Church”)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보편교회를 의미한다. 소문자 교회(“church”)는 교파적 교회들을 의미한다. 단 제목의 일부로 쓰여졌을 때(예: 미장로교회)는 예외. 비전문적으로 개교회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개교회”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의 뜻 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1.0203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심

그리스도는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규율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에 일치되게 다스려져야 한다.

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의 권위에 예속되었고, 생동적이고 환희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바탕이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기쁘게 머무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화해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다(골 1:16-23).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 상호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을 내보낸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와 청원, 그의 거룩함과 연합을 받아들인다.

F-1.03 교회의 부름 받음

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심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셨으며, 세상 안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삶에서 이러한 은사를 증거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골 1 12:27-28):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교회는 자체의 생존을 –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 하나님 한분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실체를 만드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에 즐거워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체는 세상에서 인간생활의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룩되며 분열의 벽이 허물어진다. 교회는 그 약속된 새로운 실체의 힘이 현존하는 가운데 산다.

교회는 조화 속에서 살고 화해를 추구하며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는 것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0302 교회의 표식²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고 확신한다.

a.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들어올리시고, 적대하는 분열의 벽을 허물으시며,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상호 용서하는 사랑이 있는 의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영적교류와 하늘잔치에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시기 위해 행동하신다.

교회의 사도성도 우리의 부름받음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계약교제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러한 계약 교제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들,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들과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받는다. 교회는 그러한 증언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이 텃으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숙박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분열을 화해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세상 안에서 사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언행으로 증거한다.

² 신앙고백서니케아 신조1.3 참조.

교회는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하도록, 신앙고백의 표준을 준수하는 일에 책임을 갖도록 보내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리고,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며, 그리스도 홀로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로서의 새 삶으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제자들을 만드는 일;

예배와 기도, 친교와 봉사의 심도있는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의 필요를 돌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좌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이룩하는 일.

b.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불화가 극복되게 하시고, 분열이 치료되게 하신다.

교회의 보편성도 우리의 부름받음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편적 교회는 모든 시간과 장소, 모든 인종과 국가, 모든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부름 받았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증거하면서 보다 깊은 믿음으로, 보다 큰 소망으로, 보다 완전한 사랑으로 가도록 교회를 부른다.

c.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통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 교회의 거룩함은 수난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교리의 순수성이나 행동의
공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거룩함도 우리의 부름 받음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교회와 교인들과 직제사역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끌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로 각 신앙인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성경과 은총의
수단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적,
개인적 생활에 존재하는 죄의 집요성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순결성, 공의로움, 진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실체를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한다.

d. *교회의 일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 구세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 교회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추구하며, 기독교
공동체 만이 혜택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이다. 왜냐면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엡 4:5-6).

교회의 일치도 우리의 부름받음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합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
결합하는 것은, 세상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체 공동체
복지를 위해 각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총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한 사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교파로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교회와
세상에게 우리의 일치를 모호하게 한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모호성을 감소시킬 것을 공약하며, 나아가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거룩한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모든 다른 교단들과 교제와 유대를 추구하고
든독하게 하려는 기꺼운 용의가 있다.

1.0303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각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은 동 교단
초기부터 다음의 교회들을 (어디에 소재하든 간에) 참된 교회의 존재로 표시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리게 하는 교회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교회
교회 규율을 준엄히 집행하는 교회.

현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선교에 다음과 같이 충실하다고 확인한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실체 비전으로서
선포하고 듣는 일,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실체의 참여에 초대하는 일;

성례전을 축복받은 공동체 비전으로, 하늘나라 잔치로서 집행하고, 소외
받고 굶주린 자들과 연대하는 일에 결단하는 일;

하나님 약속의 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선교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하는 일.

1.0304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친교;
- 거룩한 예배의 유지;
- 진리의 보존;
-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⁴

³ 스코트 신앙고백서 제18장 참조 (*신앙고백서* 3.18)

⁴ 교회의 큰 목적에 관한 이 선언은 북미 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동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고 이 선언은 통합된 교단의 명칭이 된 미연합장로교 교단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선언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다양한 결정을 따라가며, 그리고 동 교단 헌법 개정을 앞두고, 1910년에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적 진술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한다. 이러한 고백에서 교회는 교인과 세상을 향해, 교회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교회의 믿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고, 그것들은 개혁주의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며,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그것들은 개인의 신앙결단 및 신앙공동체의 생활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는 데 요긴한 것이다.

이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안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고백서들이지만, 그 당시 사회/문화적인 가정(假定)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때때로 서로를 긴장관계에 두기도 하였으나 공통의 신앙 전통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받은 자에게 교회는 가르침과 조언을 주며 권징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 신앙고백서 변경 절차는 교단 전체적으로 고도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준엄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치리와 교리의 표준 개혁에 개방적이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를 확인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하여 “개혁된 교회이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F-2.03 보편된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보편된 교회의 신앙을 증언한다. 그 신앙고백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즉 정전(正典)으로서의 성경과 전세계 교회적인 신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정의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F-2.04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들 주장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개신교의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슬로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극시키는 이해의 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절대주권의 공의로움과 사랑의 자유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며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는 신의 주권, 거룩하심, 섭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전통의 다른 큰 테마들이 있다:

구원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 선택;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기강있는 배려에 의한 계약의 삶을 사는 일;

걸치레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은총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 정신;

인간에게 우상숭배와 독재의 경향이 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 계명에 순명하는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제3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F-3.01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⁵

본 *규례서*를 제시하면서, 미국장로교(PCUSA)는 이 나라 공통 유산의 일부가 되어왔으며 장로교 개념과 교회치리제도의 기본이 되어 온 교회규례의 역사적 제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3.01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심

-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⁶이 신앙이나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율로부터 자유하다.”⁷
-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판단의 권리들을 보편적인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된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 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3.0102 집단적 판단

상기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각 기독교 교회나 연합체나 특정 교회들의 연합이나 조합의 각각은 그 교류 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4)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4)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6 여기 인용한 인간과 인간의(“men”과 “man’s”)는 18세기에서 나온 말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앙고백서* 6.109) 참조

3.0103 제직원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을 임명하시어,⁸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직원과 전체 교회에 주어진 의무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권징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함에 도달하기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어떤 중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거나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3.0105 상호관용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좋은 품성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3.0106 교인들에 의한 제직원 선출

교회 제직원의 품성, 자격, 권위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여와 제도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명시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제직원을 선출하는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3.0107 교회의 권한

⁸ 제직원과 제직의 용어는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언문의 일부로서 여기에 보존되어 있다. “직제사역자”와 “직제사역”의 용어들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는데 이는 제직원과 제직 대신에 사용되어 있다

모든 교회 권한은 전체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혹은 권한위임에 의해 대표되는지 간에, 오직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교회의 어떠한 치리회⁹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모든 대회와 중앙협의회가 인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제 원칙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오로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권력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공의로움, 공정한 대중의 승인,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발생한다.

F-3.02 장로교 정치의 원리

미국장로교는 보편교회 원칙의 맥락 안에서 장로회 정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재확인한다:

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집합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며, 교회라 부른다.

3.0202 장로에 의한 치리

이 교회는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는,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인 장로들에 의해 치리된다. 치리장로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교인들 위에 “군림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육성하도록 개교회에 의해 선출되었기

⁹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어문 일부로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치리회”는 그 용어가 “협의회”로 바뀌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 있다.

때문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로도 부르는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사역과 증거하는 일에 준비시키는 모든 일에 헌신해야 한다.

3.0203 *협의회 회집*

이 장로들은 각급 협의회에서 회집한다. 이러한 협의회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협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가 되어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협의회들은 서로 별개적이거나 어느 한 협의회는 이들을 통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점에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교회의 상회나 상회의 대표는 교회의 하회를 치리한다.

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반영함*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변하기를 구한다.

3.0205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투표로 결정하며, 다수결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0206 *검토와 감독:*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조회나 불평이나 상소가 들어왔을 때 논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3.0207 *협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와 집사는 오로지 협의회 권한에 의해서만 안수된다.

3.0208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교회 관할권은 공유 권한이며, 협의회에 회집된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0209 *일반 협의회 권한*

협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 의무와 권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각 협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노회에 예속된 것으로 언급되지 권한을 가진다.

F-3.03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세

3.0301 전통과 갱신

미국장로교 헌법에서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그 밑바탕을 두며 참된 교회의 표식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정치형태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부르시는 교회의 주님에게 항상 종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활동으로 예배 공동체와 개인 신자들을 끌어들이신다. 개혁과 참신한 방향을 구함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성령의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 받기를”(롬 12:2) 구한다.

3.0302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의 장로교 정치는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립에 필수적이라거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3.0303 다양성과 포용성

한분 하나님의 일치가 삼위일체의 다양한 공동체로 표명되며, 따라서 교회의 일치 또한 회원의 풍부한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교회는 교인 가족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따라서 예배와 치리와 삶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연령과 남녀에 구별 없는 모든 민중 그룹, 각종 신체장애, 다양한 지역, 개혁교회 전통과 일치된 여러 신학적 입장, 여러 결혼한 상태(기혼자, 독신자, 미망인, 상처한 자, 이혼자)의 교인들이 다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표자로서 충분히 참가하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회원권 내의 사람들이나 그룹에 대해 참여와 대표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3.0304 열린 자세

교회는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선교를 하는데 새로운 열린 자세의 부름을 받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며, 죄많은 인간의 저주를 괴로워하시고, 새로운 인류성을 일으키시고 모든 창조물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미래 뿐만이 아니고, 피조성, 죄성, 깨어진 마음, 고통의 실체를 전 인류와 더불어 공유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장로교(PCUSA)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의 부름을 받았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활동과 보다 헌신적인 순종에서 그리고 예배와 사역에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에 대한 새로운 열린 자세;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교회 내의 회원구성과 나이·민종·조건의 제한 없는 남녀 회원들의 신앙공동체로서 새로운 열린 자세;

제도적 형태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충실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새로운 열린 자세;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큐메니칼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 하심에 대한 새로운 열린 자세.

3.0305 기틀 마련 선언문

이 단원에 포함된 선언문들,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는 미국장로교(PCUSA) 정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교회적이고 역사적인 결단들을 기술한다. 이 헌법 어느 조항이든지 전체 헌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떤 조항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조항들 간에 긴장과 모호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사법전권위원회가 전 조항에 대해 효과가 미치는 방법으로 해소한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서들을 포함한다:

니케아 신조 (The Nicene Creed)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스콧 신앙고백서 (The Scots Confession)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2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바르멘 신학선언 (The 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1967년도 신앙고백 (The Confession of 1967)
간추린 신앙고백 (A Brief Statement of Faith) –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Worship)
권징조례 (The Directory for Worship)